

처음에는 후회했다.
왜 그 때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. 왜
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을까. 왜 돌아
돌기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까.
하지 말라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.

그때서야 알았다.

다음 날도, 그 다음 날도
마찬가지였다. 가끔 개네 집에서 자야
할 일이 있을 때면 뜬눈으로 밤을
지새우긴 했으나, 별 일 아니라고
생각했다. 내가 개를 다시 생각하기
시작한 건 오 년쯤 뒤, 췌 췌스를
결핍하고 나서였다. 개가 나에게
하러던 림이 정확히 뭐였는지, 나는
그때서야 알았다.

1면칠필

개를 이해해보려는 노력도 있었다.
행기 왕성한 사춘기니까 그럴 수도
있지 않았을까. 내가 너무 조심성 없이
있던 건 아냐까. 사춘 개가 한 건 나를
만진 것 밖에 없는데 너무 과민한 건
아냐까.

나무라지는 안중일까.

다음에는 아를 들을 원망했다.
엄마는 왜 개를 불쌍하게 생각할까.
나는 왜 이모를 좋아할까. 이모가 이
사실을 알고도 개 편을 들면 어쩌지.
엄마랑 이모는 왜 친할까. 아빠는 왜
이모한테 돈을 빌려서 내가 고민하게
만들까. 친척들이 내 말을 믿을까.
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오히려 나를
나무라지는 안중일까.

나에게로 돌아오고, 나는 브래지어를
벗고 잠에 든 열여섯의 나를 탓한다.
관이 화가 난다. 결국 화살은 다시
피물다는 건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
같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이렇게
이모가 개를 버렸으면 좋겠다. 하지만
한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
아니, 죽지도 않고 인간구원 못하면서
저주를 퍼붓는다. 죽어버렸으면 좋겠다.

그러다 이해하기를 실패하고

말랑. 토할 것 같은 기분을 참고 북구멍을
헤집었다. 그러다 축 뽐냈다. 생각보다
클고 두꺼운 가시였다. 시원했다. 그리고
생각했다. 나는 언제쯤 개를 떠올리지 않을
수 있을까.

작은배가 진행하는
<일상묘사 : 수필 합형 모임>에서
탄생한 글입니다. QR 코드를 스캔하면
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.
더 많은 글은 jagunbae.com에서 확인하세요.



작은배가 진행하는
<일상묘사 : 수필 합형 모임>에서
탄생한 글입니다. QR 코드를 스캔하면
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.
더 많은 글은 jagunbae.com에서 확인하세요.